

식품안전관리,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고양시 식품안전도우미

여름이 되면 그 어느 때보다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식품 관리’가 그것이다. 냉동실에서 오래 방치된 재료들이나 검은 봉지에 싸여 유통기한 없이 보관되고 있는 음식들은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다. 이에 덕양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정훈) ‘식품안전도우미’가 나섰다. 식품의 유통기한 관리부터 냉장고 미화까지, 시민의 건강을 두루 살피는 이들을 만나봤다.

글. 박다연 사진. 김오늘



(좌측부터) 김두만, 김국자, 김민자, 김영애, 지화영, 조경희, 표선옥, 장현주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실버 코너는 큰 글씨로 표기합니다.



각 가정을 방문해 냉장고 청소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식품안전도우미들

전문성과 꼼꼼함이 요구되는 식품안전도우미

식품안전도우미는 고양시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식품 안전관리가 필요한 각 가정에 방문해 냉장고 정리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올해 첫 시행됐다. 선발된 8명의 어르신은 평균나이 만 65세 이상으로, 4명씩 한조를 이루어 1일 3시간씩, 주 5일 업무를 진행한다.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선입견은 큰 오산. 이들은 선발 이후, (주)한국정리수납개발원과 연계한 전문가 초빙을 통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했으며, 8월에는 수납정리컨설턴트 2급 자격증 과정도 수강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저희에게 매월 접수된 명단이 배분돼요. 그러면 각 가정에 전화를 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길 원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업무가 시작되지요. 서비스 대상 가정에 도착하면 우선 냉장고를 점검하고 사진을 찍는 것부터 시작해요. 냉장고 안에 묵혀둔 각종 식재료부터 반찬통 등을 다 꺼내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해요. 그 사이 냉장고 속을 친환경 세제를 활용해 깨끗하게 닦고 소독하고요. 그리고 육류, 생선, 건어물 등 식재료의 위치를 신청자와 상의해가면서 정리하죠. 꼬박 3시간이 걸리고 어떤 때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지인의 추천으로 식품안전도우미 활동에 참여하게 된 김영애(76) 씨는 냉장고 정리가 간단한 것이 아닌, 전문성과 끈기, 체력이 요구되는 작업임을 강조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쉽사리 열어주지 않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냉장고 안에 방치된 오래된 음식들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분을 만나면 설득하는 데 애를 먹기도 해요.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냉장고를 보시며 고맙다고 해주시면 모든 수고가 한번에 잊혀요.” 이메일로 오는 고양소식을 보고 사업에 참여하게 된 조경희(68) 씨는 과정은 힘들지만, 일을 마친 후의 뿌듯함이 일의 매력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노동에서 오는 긍정의 에너지가 다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밝게 웃는다.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다해

노인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시기에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낀다는 두 사람. 무엇보다 같은 세대의 신청자가 많아 더욱 마음이 쓰인다고 맡겨진 일은 냉장고 청소이지만, 때에 따라 싱크대 정리 등 소소한 집안일을 거들어줄 때도 많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돼요. 특히,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주로 집에만 계시니 누군가 찾아오는 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세요. 같은 세대로서 공감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 신청하신 분의 눈높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같아요.”(김영애) “청소를 도와드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도 함께 말씀드려요. 한번 먹은 음식은 아까워하지 말고 곧장 버리고, 한번에 너무 많은 재료를 사는 것보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조금씩 사서 드실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식품의 위생도 걱정할 필요 없고, 냉장고 정리도 훨씬 간편해지니까요.”(조경희) ‘우리 집 냉장고를 청소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늘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한다는 식품안전도우미들.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일하고 싶은 실버세대에는 맞춤형 일자리가 많아지기를 바라본다. 